

# 금융산업 글로벌화 전문가 간담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023. 9. 20(수) 15:3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연구소장님 및 연구기관 참석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 시  
12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금융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금융국제화대응단'을 신설(3.6)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Ⅱ. 금융산업 글로벌화 추진 경과

---

지난 7월,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인수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7.17, 제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거래소 등  
금융 인프라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금융분야 ODA 재원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및 KOICA 등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습니다.

외교공관을 중심으로 금융 유관기관,  
현지 진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현지의 영업·규제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애로사항 등을 공동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진출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3개국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운영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외교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5월 중앙아시아 출장(5.16~5.19)에 이어  
9월 초(9.3~9.9) 우리 금융회사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 (중앙아시아) 금융회사·핀테크 공동 결제인프라 수출 협약식(키르기스스탄),  
핀테크협회 업무협약(우즈베키스탄) 및 금융당국 면담 등  
(동남아시아) 금융협력포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간담회(인니), 마이데이터  
워크숍, 핀테크 데모데이(베트남), IR(홍콩), 현지 금융당국 면담 등

현지 금융당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다지며,  
현지 규제로 인해 우리 금융회사가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현지진출 금융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언어와 문화 등 모든 환경이 다른 타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영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Ⅲ.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향

---

그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한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유능함과 창의성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One Team’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금융은  
외국계 회사가 현지에 정착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금융회사는 진출국의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법과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나가고,  
개별 국가 소비자들의 니즈와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분야 ODA 사업 확대는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분야 ODA 사업은 수원국 금융당국자들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허가 등 진입장벽 극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한국형 금융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들이 보다 쉽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시기와 대상 국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금융시장이나  
중동, 인도 등 신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시장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며,  
항상 글로벌 시장을 주시하고 기회와 위협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금융회사와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의 진단과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V. 맺음말씀

---

금융국제화대응단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민간은 어떠한 전략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